



胃 癌

吳 仁 赫 (서울醫大教授)

암은 무서운 병이다. 한번 걸리면 사형선고를 받은거나 다름없다. 그래서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암으로 판명되었을 때, 환자에게 무엇이냐 진단명(병명)을 말해 주어야 할지 몹시 난처해진다. 좀 요령있는 가족들은 환자의 보호자로 병원에 함께 왔다가 환자가 일단 진찰실을 나간 뒤에 넌지시 의사에게 병명을 물어본다. 이런 경우에는 훨씬 말해줄기가 홀가분하다. 그러나 환자가 혼자 왔거나 보호자가 같이 왔어도 환자 옆에 딱 붙어서서 무슨 병이냐고 따져 물을 때는 아주 질색이다. 암도 완치될 수 있는 날이 오면 그때는 의사도 얼마나 홀가분하게 환자에게 모든 것을 말해 줄 수 있을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암은 아직도 정복되지 않고 있다. 항상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들은 이 무서운 암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 이것이 현대의학의 큰 과제의 하나로 남아 있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암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예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암을 빨리 찾아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암을 완전히 치료할 수 있을까 등의 여러가지 어려운 큰 문제들이 아직 속제로 남아있는 것이다. 암을 예방하려면 먼저 암의 원인을 알아야 하는데 현재 암에 관한 원인설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암의 원인과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모든 가능성있는 요소들을 배제하거나 피한다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차선의 방법으로는 어떻게 빨리 발견을 하고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실지 臨床을 통한 치료경험에서 그 해답을 찾아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암은 우리들의 신체내의 어떤 器官 어떤 臟器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서로 7 특성이 다르다. 그러므로 이들을 함께 묶어서 말하기는 매우 어렵다. 각 기관과 조직의 특성에 따라 진단의 難易性에도 차이가 있고 치료에 대한 효과도 다르게 나타난다.

의학적인 통계에 의하면 암종류의 각 기관별 발생빈도는 세계의 각 지역마다 다르고 또 인종에 따라서도 그 경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위암이 남성에게 가장 많고 여성은 자궁암이 제일 많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남녀 구별없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위암이 전체 암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향이다. 우리나라에는 人口對比의 정확한 통계가 없어서 잘 알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와 발생빈도가 매우 비슷한 일본의 경우를 보면, 남성은 인구 10만에 위암환자가 68명의 비율로 발생하고 있으며 여성은 35명으로 되어있는데, 이와같은 경향이 우리나라와 비슷하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3만 6천명의 위암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계산이 된다. 그런데 최근의 경향을 보면 위암으로 진단되는 환자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感이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절대인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점도 그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근년에 이르러 도시와 농촌과의 교통이 편리해짐

으로써 의료시설이 잘되어 있는 도시까지 와서 진찰을 받는 환자의 수가 늘고 있는 점. 위암 진단의 방법과 기술이 향상되고 있는 것과 아울러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연장됨으로써 위암 발생의 기회가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점등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필자가 과거 수년간 서울대학병원에서 진단한 위암환자에 대하여 빈발하는 연령의 순서로 보면 50대에서 가장 많이 생기고 있어서 전체의 32.7%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은 40대의 29.0% 60대의 18%, 30대의 15.7%의 순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20대와 70대는 각각 2.3%로서 비교적 적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40대와 50대에서 발생하는율이 전체의 61.7%로서 과반수가 이 연령층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느 연령층에서나 생길 수 있다는 점이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그러면 위암은 한번 걸리면 아주 절망적인 것인가. 앞서서도 말한 바와 같이 미리 예방한다는 것은 현실적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다만 일단 걸렸을 때, 어느 정도의 완치의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다. 지금까지의 세계 각국의 臨床치료 경험의 통계적 결과에 따르면 위암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적절한 시기에 정확하게 진단하고 적절한 수술로써 이를 제거한다면 완치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그러면 적절한 시기라는 것은 어느 시기를 말하는 것인가. 위암은 처음 胃粘膜에서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갈수록 위벽을 깊이 그리고 넓게 浸潤하며 퍼져 나간다. 또한 胃周圍의 淋巴腺이나 주위의 조직이나 器官 또는 멀리 떨어져 있는 장기에다 옮겨가서 그 곳에서 또 자라게 된다. (癌細胞 轉移라고 한다)

그러므로 적절한 시기라고 하는 것은 胃癌이 위벽을 깊이 浸潤하지 않고 또 다른 부위로 전이되어 있지 않은 시기를 말한다.

학술적으로는 癌細胞가 위점막이나 粘膜下조직까지만 있고 그 이상으로 퍼져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것을 임상에서는 편의

상 早期 胃癌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시기라면 아무리 胃癌이라도 수술로써 암을 제거하면 92%이상이 완치된다는 사실이 임상결과 증명되었다.

위암이 완치되었는지는 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환자가 수술을 받은 뒤 시일이 얼마나 경과하였느냐 하는 시간으로 판단한다. 즉 5년을 기준으로 하여 5년이상 생존하면 일단 암은 완치된 것으로 본다. (이것을 5년生存率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위암수술을 받아도 재발하는 경우에는 거의 5년 이내에 재발하게 되므로 5년이란 세월이 지나면 일단 안심해도 좋다는 뜻이다.

암수술 후에 재발이 되는 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적절한 시기가 지나서 수술을 받았을 경우가 대부분이며, 간혹 의사가 수술시에 위에 암조직을 완전히 떼어내지 못하고 일부분이 남아 있게 되면 언젠가는 다시 재발하게 되는 것이다.

앞서 조기 위암이라는 말을 하였지만 이 조기라는 말은 결코 암이 발생하지 얼마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암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같이 처음에는 그렇게 급속히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환자가 자각증세를 느끼게 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환자가 병원을 찾게 될 때는 이미 암이 상당히 진행되었을 경우가 많으며 암의 발생시점으로부터 따진다면 5년이상 10년 가까이 경과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위암이 발생하면 어떤 증세 특히 소화기계통에 자각증세가 일어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나 위암의 초기증세는 없으며, 아무 증상없이 서서히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건강하던 사람이 뚜렷한 까닭없이 식욕이 나빠지고 쉽게 피로하며 체중이 준다든가 소화불량과 위에 통증등이 있으면 곧 진찰을 받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다.

위암진단의 가장 기초가 되는 1차적 검사는 위 X선 검사이다. 위 X선 검사는 그 기술과 숙

런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검사하는 사람에 따라서 확진율에 큰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즉 위의 운동성, 전체적인 형태 등을 투시하면서 파악을 하고 환자의 체위를 바꾸고 透視角度를 달리하면서 어떤 병변을 찾아내야 한다. 또 胃部를 압박하기도 하고 空氣二重造影法과 같은 특수검사법 등으로 다각적인 검색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위 X선 검사는 반드시 X線科 전문의를 찾아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위 X선 검사는 X선이 만들어 주는 그림자(陰影)로서 위의 상황을 판단해야 하므로, 작은 病變나 粘膜面의 微細한 변화는 증명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異常所見이 발견되더라도 그 본체가 어떤 것인지 확실치 않은 때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2차적인 검사로서 胃內視鏡으로 정밀검사를 하게 된다.

위내시경으로는 胃內部 粘膜面을 직접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胃속의 상태를 상세하게 관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 X선 검사와 위내시경 검사의 두 가지를 병행해서 실시하면 진단율을 훨씬 향상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위 내시경에는 위점막조직을 작게 떼어내는 장치가 있으므로 이 방법으로 조직검사까지 할 수 있으며(生檢法이라고 한다), 또 내시경에 장치된 관을 통해서 위액을 채취할 수 있으므로 위액속에 섞여 있는 脱落된 암세포를 검사해 낼 수도 있다.(細胞診이라고 한다).

이상과 같이 위 X선 검사법과 위내시경 검사법, 胃生檢法, 細胞診등 현재 실시하고 있는 여러가지 검사법을 종합적으로 시행하면 암의 진단은 90%이상 정확하게 적중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자각증세가 나타나기 이전이라도 자기의 건강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진단을 받는다면 위암의 조기진단도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위암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혹(癌腫)이 점점 커져서 덩어리를 형성하는 胃茸腫型과 胃壁을 넓게 浸潤해 나가는 硬性癌, 그리고 良性胃潰瘍과 비슷한 潰瘍을 만드는 潰瘍암 등이

있다.

이들 중에서 앞의 두가지 형태의 암은 뚜렷한 자각증세없이 점차 진행하다가 자각증세가 나타나서 비로소 병원을 찾아 왔을 때에는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을 경우가 많다. 이것과는 달리 潰瘍암의 경우는 비교적 자각증상이 빨리 나타나기 때문에 병원을 찾아오는 시간이 비교적 빠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각증상이나 위 X선 검사소견등이 양성 潰瘍과 매우 비슷해서 처음에는 단순한 위潰瘍으로 알고 이에 대한 치료를 상당기간동안 받다가 완쾌가 되지않아 후에 여러가지 검사로 비로소 암으로 진단되는 일도 드물지 않다. 그러므로 위潰瘍의 증상이 있을 때는 철저한 검사와 더불어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한 것이다.

끝으로 위암은 조기에 발견하여 수술하기만 하면 완치할 수 있는 병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위암은 조기에 특별한 자각증상이 없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다만 우리들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항상 세심한 관심으로 정기적인 위검사를 계속 받는다면 위암의 조기진단이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 특히 위암의 好發 연령인 40대로부터 50대까지는 2~3년에 한번씩이라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실제로 자궁암에 대해서는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여러 종합병원에 자궁암에 대한 조기 암진단센터가 설치되어 정기적(6개월마다)으로 진단케 하고 있고, 일반 사람들에게도 잘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위암에 있어서도 이와 방법은 똑 같다. 우리들이 이점을 잘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이 운동(조기 위암진단)에 가담한다면 위암이라도 두려울 것은 없다. 우리들의 노력으로 위암은 극복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기 위암의 발견예가 해마다 늘어가고 있다. 귀한 생명이 해마다 많이 구출되고 있는 것이다.